

# 경기도, 축산농가 폭염 지금부터 대비한다

## 면역증강제 지원·현장점검 실시

경기도가 올여름 무더위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현장점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축산 농방 시설 작동 여부, 전기 설비 노후도 등을 꼼꼼히 살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총 6억6천만 원(도비 2억 원 포함)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조기에 공급한다.

전 예방 및 사후 신속 대응' 체계도 공고히 한다. 도는 사전 예방을 위해 총 244억 원(도비 22억 원 포함) 규모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농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 폐사체 처리와 시설 복구 등 사후 복구를 위해서는 1억2천만 원의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사양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사육 밀도 조절) 평소보다 사



▲경기도체계

육 밀도를 10% 이상 낮춰 가축 간 열 발생을 줄인다.

(환경 온도 저감) 축사 지붕 위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송풍팬 가동 및 안개분무 실시로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

(급수 및 영양 관리)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비타민과 전해질 등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혼합해 급여한다.

(전기 시설 점검) 냉방기 가동 급증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점검하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위생 관리 강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물품 및 사료조 청소와 소독 관리한다.

신종 광 축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경기도는 농가와 협력해 선제적 방어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면역증강제 지원과 재해보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com

# 양주시, '2026년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강

양주시는 지난 17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2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시농업전문강사 양성과정' 제8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의 공익

적 가치를 확산하고 전문 역량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지도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

는 시민 중 도시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쌓게 된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총 25회(10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현장 밀착형 실무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주요 과정은 ▲도시농업 관련 법규 이해 ▲친환경 농자재 제작 및 작물 재배 ▲세종국제정원박람회 현장 견학 ▲텃밭 설계 및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www.kfeedia.or.kr

한국단미사료협회

- 정부위탁업무
- 회원사 지원사업
- 교육훈련사업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 사료품질 및 안전성 검사
- 세계적 분석 검증능력 강화 및 확보
- 사료분석방법 개발 등 분석교육 지원사업

**TOGETHER WE CAN!**

안전한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본 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AIA 회관 Tel. 02)585-2223  
사료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미래산단4로 95 Tel. 044)863-5790

# 인제 하추리산촌마을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후보 선정

## 지속가능 관광모델로 국제무대 진출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이 제6회 UN Tourism(유엔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의 대한민국 후보마을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하추리산촌마을은 지난 4월 7일 진행된 후보마을을 심사해 합격했으며, 향후 현장 컨설팅과 국문·영문 신청서 작성, 번역·감수 등을 거쳐 6월 최종 출품이 이뤄질 예정이다.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은 농촌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우수마을을 발굴하는 국제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제를 포함해 6개 마을이 선정됐다.

후보마을로 선정되면 'Best Tourism Villages Network' 가입을 통한 국제 교류·협력 기회와 함께 UN 인증 로고를 활용한 공식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추리산촌마을은 설악산 자락과 내린천을 품은 산촌마을로, 주민이 직접 출자·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잡곡 재배와 가공, 체험, 숙박을 연계한 주민 주도형 관광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전 문화와 산촌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가마솥 밥짓기, 도리깨추제 등 차별화된 콘텐츠



▲인제 하추리산촌마을(인제군청제공)

를 통해 농촌·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하추리만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추리산촌마을 관계자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산촌문화와 관광자원이 이번 후보마을 선정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하추리만의 강점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경남농기원, 배·복숭아 과원 깍지벌레 부화 본격화

## 깍지벌레 예찰 강화 및 적기 대응 당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배,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 과원에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가 4월 중순부터 부화·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예찰 강화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깍지벌레는 겨울철에 나무껍질 틈에서 월동한 뒤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부화해 어린 가지와 잎, 과실 등에 피해를 준다.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여름철 개체수가 증가해 과실 품질과 상품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장기간 고온의 영향으로 깍지벌레 발생이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가 컸던 과원은 나무껍질 속에 월동 해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적산온도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지역에서 4월 중순을 전후해 월동 알의 50% 이상이 부화할



▲배나무 깍지벌레예찰

것으로 예측하고, 초기 방제가 중요한 시기에 맞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깍지벌레는 애벌레(약충) 시기에는 왁스층이 형성되지 않아 약제 침투가 쉽지만, 성충이 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에 배나무는 가루깍지벌레를 대상으로 4월 중·하순, 복숭아·자두·매실 등 핵과류는 뽕나무깍지벌레를 대상으로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사이 적기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과원에서는 나무껍질과 가지 등을 중심으로 깍지벌레 발생 여부

를 수시로 확인하고, 애벌레 발생이 확인되면 등록 약제를 활용해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제 살포 시에는 나무껍질 틈새까지 충분히 적신다는 느낌으로 수관 전체에 고르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거친 나무껍질을 제거(조피 제거)하고, 가지치기 부위에 도포제를 발라 해충 서식처를 줄이는 등의 관리도 효과적이다. 수세가 약한 나무는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적절한 수분·양분 관리도 함께해야 한다.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주요 과원을 중심으로 깍지벌레 부화 여부와 발생 밀도를 현장에서 집중 예찰하고 있으며, 발생이 확인된 과원에 대해서는 즉시 방제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김시은 지도사는 "현재는 깍지벌레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예찰을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령시, 원도심 일원 환경정화 및 탄소중립 홍보 전개

보령시는 지난 21일 원도심 복합업무센터 일원에서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환경정화 및 탄소중립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를 비롯해 대천1동 주민센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령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원도심 일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원도심 복합업무센터 인근 도로와 골목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주간 및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원도심을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com

# 화순군, 토양검정 기반 맞춤형 시비 확대

화순군은 최근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토양검정과 '휴토람'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시비 관리 확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단순히 비료 사용을 줄이기보다 토양 상태에 맞는 적정 시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토양검정 기반 비료 사용 처방 서비스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휴토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토양 내 양분 함

량을 분석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과다 시비를 방지하고 비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휴토람' 시스템에 접속하면 '작물별 비료 표준사용량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농가에서도 작물에 맞는 적정 시비 기준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비료비 절감은 물론 토양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퇴비와 액비 사용을 병행하면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을 순환형 농업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비료 가격 상승 상황에서 중요한 대응은 과학적인 시비 관리"라며, "토양검정과 휴토람을 활용한 맞춤형 비료 사용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